

46
VOL

전남농업정보

2015. 8. 10. ~ 8. 16. 주간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오이·애호박 재배 동향 및 엽근채소·양념채소
가격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영암군, 벼 병해충 예방 기술 지원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신선식품 수출
지원센터' 개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구이용 흑염소 생산기술 개발

정책동향

전남 농식품 지리적 표시 등록 전국 최다

고소득 농업사례

베트남 여행가이드에서 열대작물 농사꾼
으로 변신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4~12mm)보다 적음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백다다기오이, 8~9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감소, 10월은 비슷
- 애호박, 8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9월은 증가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배추 가격은 최근 적절한 강우로 작황 회복되면서 출하량 증가하여 평년 대비 낮은 4,700~5,7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작황 회복되어 전월 하순 및 평년과 비슷한 13,000~15,000원/18kg 전망

▶ 양념채소 : 건고추, 양파

- 건고추 : 건고추 8월 산지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아 평년(7,930원/600g) 대비 보험세 전망
- 양 파 : 양파 8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885원)보다 높은 1,300~1,500원/kg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광남일보, 무등일보)

- ▶ 영암군, 벼 병해충 예방 기술 지원
- ▶ 강진 '콜라비' 틈새작목 육성 박차
- ▶ 장성군, 귀농인-지역민 소통의 장 마련
- ▶ 해남군, 베리의 왕 '블랙커런트' 재배시동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한국농어민신문)

- ▶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신선식품 수출지원센터' 개설
- ▶ 대중국 5대 수출전략품목 세부지원 방안 나왔지만...
- ▶ "포도 품질 기준없어 중국 수출 확대 효과 의문" 우려 목소리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전남농기원, 구이용 흑염소 생산기술 개발
- ▶ 풀사료 섞어 심으면 한 해 3번 거둘 수 있어요
- ▶ 한우 육질, 초음파로 관리한다
- ▶ 벼 이삭도열병, 미국선녀벌레 등 주의보 발표!

☞ 정책동향(전라남도, 한국농어민신문)

- ▶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 신청하세요
- ▶ 전남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전국 최다

- ▶ 올 국감 최대 화두는 "농업경영비 절감"

- ▶ 기재부 세법개정안...영농상속 공제한도 5억→15억원 확대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이집트, 8월 이후로 높은 수분함유의 프랑스산 밀에 대한 수용 확대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 옥수수 선물가격은 우호날씨와 달러화 강세, 기술적 매수, 유럽의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혼조세를 보이다 상승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작황 부진 전망에 수출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전라남도, 남도일보)

- ▶ 보향다원 최영기 씨 첫 대한민국 6차산업인
- ▶ 베트남 여행가이드에서 열대작물 농사꾼으로 변신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모집공고
 - 선정규모
 - 친환경농산물 : 전국 11개, 친환경 양곡 : 전국 6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8.12.31.(식재료 공급기간 3년 이하)
 - 신청기간 : '15. 8. 3. ~ 8. 24.(평일 09:00~18:00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 2층 농산급식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평가방법 : 계량평가(서류) 70%, 비계량평가(현장) 30%

▶ '15년 축산분야(양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 기 간 : 8. 5. ~ 8. 21.(2주간)
- 대 상 : 전업규모(3만두) 이상 양계농가
- 내 용 : ICT 융복합 시설장비(환경, 사양 등) 및 정보 시스템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융자 50%, 자담 20%
- 지원기준 : 표준사업비 1억원(3만두 기준) / 상한액 5억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8. 10.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8/10)	전주 (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신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5,467	↓ 2.1	↓ 28.9
	고구마(밤)	10kg	31,400	37,400	37,560	30,100	31,770	↑ 4.3	↓ 1.2
	감자(수미)	20kg	25,600	25,200	26,520	23,000	25,013	↑ 11.3	↑ 2.3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600	570	700	-	-	-	-
	양배추	10kg	7,200	6,900	7,280	5,600	7,979	↑ 28.6	↓ 9.8
	오이(다다기계통)	10kg	24,333	30,000	18,400	31,723	28,356	↓ 23.3	↓ 14.2
	애호박	8kg	19,400	24,400	10,680	16,050	17,447	↑ 20.9	↑ 11.2
	토마토	10kg	15,800	18,200	17,640	14,700	20,687	↑ 7.5	↓ 23.6
	무(봄)	20kg	14,000	15,200	20,400	10,400	17,080	↑ 34.6	↓ 18.0
	당근	20kg	30,200	31,000	30,680	38,550	34,343	↓ 21.7	↓ 12.1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700,000	776,400	↑ 17.1	↑ 5.6
	풋고추	10kg	24,800	25,600	35,600	32,800	37,127	↓ 24.4	↓ 33.2
	마늘(난지)	10kg	46,600	47,000	48,760	34,000	35,967	↑ 37.1	↑ 29.6
	양파	20kg	27,600	26,600	22,160	9,950	15,769	↑ 177.4	↑ 75.0
	대파	1kg	2,010	2,050	2,264	1,190	1,422	↑ 68.9	↑ 41.4
	파프리카	5kg	13,200	12,200	13,960	18,000	19,830	↓ 26.7	↓ 33.4
	방울토마토	5kg	13,200	11,600	12,280	8,650	14,750	↑ 52.6	↓ 10.5
	수박	1개	16,000	14,400	14,600	13,000	18,047	↑ 23.1	↓ 11.3
과 일	사과(후지)	15kg	66,800	66,800	66,800	92,000	81,400	↓ 27.4	↓ 17.9
	배(신고)	15kg	39,600	39,600	39,600	82,500	61,733	↓ 52.0	↓ 35.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8/10)	전주 (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50,133	-	↓ 3.3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0,000	349,533	↓ 4.5	↑ 20.2
	새송이버섯	2kg	7,100	7,600	7,960	7,500	7,753	↓ 5.3	↓ 8.4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139	7,055	6,915	6,477	6,147	↑ 10.2	↑ 16.1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25	2,074	2,235	2,043	1,911	↑ 8.9	↑ 16.4
	닭고기	1kg	5,149	5,110	5,577	5,591	5,915	↓ 7.9	↓ 13.0
	계란(특란)	10개	5,777	5,588	5,811	5,994	5,393	↓ 3.6	↑ 7.1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9	2,308	-	↑ 10.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8. 10.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48 천원	5,393 천원	4,371 천원	↑ 1.0	↑ 24.6
	거세	6,867 "	6,708 "	5,587 "	↑ 2.4	↑ 22.9
송아지 (6~7월)	암	2,659 "	2,666 "	1,880 "	↓ 0.3	↑ 41.4
	수	3,261 "	3,224 "	2,704 "	↑ 1.1	↑ 20.6
육우(600Kg)		3,473 "	3,426 "	2,950 "	↑ 1.4	↑ 17.7
젖소수송아지(7일령)		279 "	275 "	19 "	↑ 1.5	↑ 1368.4
돼지(110kg)		452 "	400 "	422 "	↑ 13.0	↑ 7.1
육계(원/kg)		1,211 원	1,319 원	1,523 원	↓ 8.2	↓ 20.5
계란(원/특란10개)		1,210 "	1,207 "	1,392 "	↑ 0.2	↓ 13.1
오리(원/kg)		2,333 "	2,333 "	3,342 "	-	↓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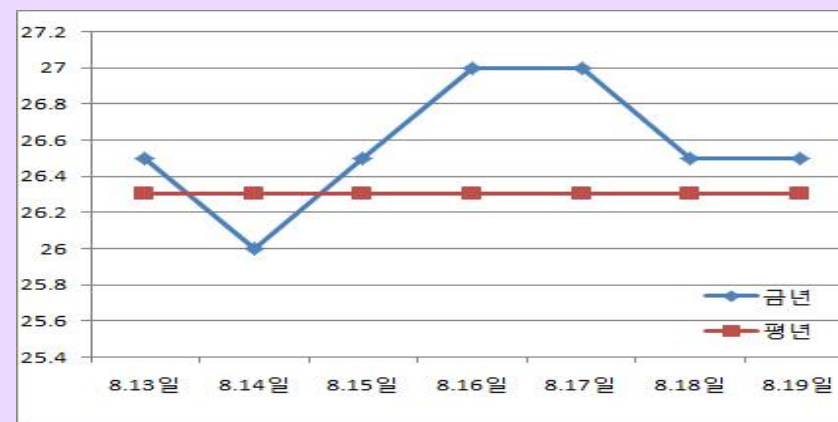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6.6	26.3	0.3	29.3	30.3	-1.0	23.9	23.5	0.3	6.9
8. 13.(목)	26.5	26.3	0.2	29	30.2	-1.2	24	23.6	-0.4	6.3
8. 14.(금)	26	26.3	-0.3	29	30.2	-1.2	23	23.6	0.6	7.3
8. 15.(토)	26.5	26.3	0.2	29	30.2	-1.2	24	23.6	-0.4	7.1
8. 16.(일)	27	26.3	0.7	30	30.2	-0.2	24	23.5	0.5	7.1
8. 17.(월)	27	26.3	0.7	30	30.4	-0.4	24	23.4	0.6	6.2
8. 18.(화)	26.5	26.3	0.2	29	30.4	-1.4	24	23.4	0.6	7.5
8. 19.(수)	26.5	26.3	0.2	29	30.3	-1.3	24	23.3	0.7	7.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오이·애호박 재배 동향

□ 백다다기오이, 8~9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감소, 10월은 비슷

- 8~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2%,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8~9월은 충청지역의 역제작형 정식이 많은 시기로 주로 대전광역시, 충북 진천, 충남 천안 등지에서 정식이 이루어지는데,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에서는 백다다기오이에서 취청오이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백다다기오이 재배 농가가 멜론으로 작목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정식면적은 경북 상주에서 신규 농업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애호박, 8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9월은 증가

- 8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 광양에서 정식을 앞당기려는 농가각 일부 있겠으나, 주 정식 지역인 충남 부여, 충북 청주에서는 재배면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 정식지인 충북 청주에서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정식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하겠으며, 금년 작황 부진으로 축성작형 출하를 조기 종료한 전남 광양에서는 정식을 10월에서 9월로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의령에서는 시설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광양에서 일부 농가가 정식시기를 9월로 앞당기겠으나, 충청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배추 가격은 최근 적절한 강우로 작황 회복되면서 출하량 증가하여 평년 대비 낮은 4,700~5,7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작황 회복되어 전월 하순 및 평년과 비슷한 13,000~15,000 원/18kg 전망

양념채소 : 건고추, 양파

○ (건고추)

- 건고추 8월 산지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아 평년(7,930원/600g) 대비 보합세 전망

○ (양 파)

- 양파 8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885원)보다 높은 1,300~1,5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영암군, 벼 병충해 예방 기술 지원

- 영암군은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읍·면 현지 기술지원에 나섰다 6일 밝혔다.
- 농업기술센터는 그 동안 예찰활동을 통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먹노린재, 흑명나방 등 주요 벼 병해충 발생상황과 출수기를 판단, 오는 15일까지를 중점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대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건장마와 고온상태 지속으로 벼멸구와 같은 해충 증식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방제를 통해 적기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영암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는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를 전후해 병해충 피해를 받을 경우 수량감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중점방제 기간 동안 적용약제를 이용해 종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광남일보

■ 강진 ‘콜라비’ 틈새작목 육성 박차

- 농업인 대상 재배기술교육 -
- 강진군이 ‘콜라비’를 활용해 틈새작목 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시범사업 목적 달성 극대화를 위해 ‘콜라비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목적, 추진 요령, 콜라비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콜라비는 재배기간이 짧은 특성 때문에 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남부에서도 가을철 단기간 재배가 가능한 매력적인 작물로 손꼽히며 제주도에서 처음 재배가 시작됐지만 최근 남부 지방에서도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 콜라비는 양배추의 변종으로서 맛은 순무와 비슷하나 달콤하며 배추뿌리의 맛을 포함해 깍두기, 생채, 샐러드, 동치미, 물김치, 녹즙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최영준 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장은 “시범사업 대상 농업인들이 고품질 콜라비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출하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주매일신문

■ 장성군, 귀농인-지역민 소통의 장 마련

- 농촌지도사회·귀농인協 참여 간담회서 상호 융화 도모 -

- 장성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 군은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농촌지도사회와 귀농인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 이는 군이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귀농귀촌 특(talk) 시스템 4단계인 ‘지역민과 융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됐다.
- 이날 지역민과 귀농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 김병탁 농촌지도사회장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귀농인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분기별 정기모임 등 귀농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양동철 귀농인협의회장은 "그동안 불거졌던 오해를 없애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귀농인과 지역민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 융화를 비롯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춘은 물론, 인근 광주시와도 인접해 도시와 농촌생활을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인기 귀농귀촌지로 각광받고 있다.
- 특히, 민선6기 들어 귀농귀촌 차별화 전략으로 ‘귀농귀촌 talk(톡) 시스템(1단계, 실시간 상담~2단계, 현장교육~3단계, 농지 및 주택 정보 제공~4단계, 지역민과 융화)’을 추진, 이주민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 출처 : 광남일보

■ 해남군, 베리의 왕 ‘블랙커런트’ 재배시동

- 해남군은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블랙커런트를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실증시험에 들어갔다.
- 해남지역에 적합한 품종선발과 재배적응 연구를 위해 2개소 0.2ha에 실증시험을 실시, 생육과정 중 발생하는 병해충과 여름철 고온기에 잎 떨어짐 증상규명 등을 시험한다.
- 베리류인 블랙커런트는 안토시안과 비타민C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블루베리에 이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군은 흑단과 벤엘더 2가지 품종을 선택해 식재했다.
- 군은 재배실증시험을 통해 지역 적합성 등을 연구한 뒤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군 농업기술센터 소득경영 윤희현 담당은 “베리류의 소비확대가 계속되는 만큼 안토시안의 성분함량이 높고 생과와 발효액, 잼, 와인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 가능한 블랙커런트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무등일보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신선식품 수출지원센터' 개설

- 물류 노하우 부족 업체 지원 -
- 최적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 -
- 정부가 최근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선식품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우리 신선농수산물식품의 수출 물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섰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 미추홀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물류 경쟁력 향상과 중화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조성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목할 점은 혁신센터 내에 신선식품 수출지원센터가 들어선 것. aT와 인천혁신센터, 한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선식품 수출지원센터는 한진의 운송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신선농수산물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딸기와 버섯, 복숭아, 광어, 굴 등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확대가 유망한 상품들을 집중 발굴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특히 물류 노하우가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및 초보기업에게는 농식품 수출실무(통관·인증) 상담과 최적(저비용)의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지원센터는 aT와 전국 17개 혁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보유한 농식품 생산자리트를 통합해,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단지와 전문수출업체 간의 목적(품목·시장·역량 등)에 맞는 중계를 통해 신규 수출품목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 문용현 aT 농산수출부 차장은 “지원센터 개선을 계기로 더 많은 신선농수산물식품이 항공운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한진과 논의 중에 있다”며 “최적의 물류서비스 및 수출컨설팅을 제공해 국내 신선식품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더욱 활발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대중국 5대 수출전략품목 세부지원 방안 나왔지만...

- 15개월 만에 확정, 이달부터 15억원 투입 계획 불구 -
- 미디어 활용·매장판촉 등 대외홍보용 행사에만 초점 -
- 수출 인프라 지원 등 업계 요구 반영 안돼 '함량미달' -
-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제2의 파프리카’ 지원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사업이 주로 홍보활동에 치우쳐 있고 일부는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요 수출시장별 전략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제2의 파프리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 인삼·유자차·버섯·화훼·유제품 등 다섯 개 품목을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추진사업을 보이지 않다가, 품목 선정 15개월 만에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달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수출업체는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업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인프라 등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지원방안 대부분이 미디어 활용 및 매장판촉 등 대외홍보용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저년근 인삼의 중국 수출 통관지원 및 중국바이어 초청 국산 춘란 경매·상담회 등 일부 사업만 눈에 띈 뿐이다.

-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중국 요우커 대상 항공사 및 공항 미디어 홍보(인삼) △현지 고급 슈퍼마켓 홍보 매대 운영(버섯) △중국 내륙지역 심비디움 홍보 및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안테나숍 활용 다육식물 홍보관 설치(화훼) △홍보물 신규 제작 및 배포(유자차) △동영상 광고 제작 및 온라인 판촉전(유제품) 등이 핵심사업으로 진행되지만, 대부분 기존의 홍보사업 성격과 반복된 것이 많다.
- 특히 버섯은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이 포함됐지만 이는 기존부터 추진 중인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및 케이푸드 페어와 연계됐고, 유자차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추진한 ‘수출용 유자차 품질인증마크 지원사업’을 그대로 진행했다.
- 이에 대해 수출업체는 정작 필요한 수출 R&D와 운송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 화훼수출업체 A 관계자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중국 내륙 시장에서 다육식물과 심비디움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이들 작물은 품질과 선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만큼, 냉장운송 인프라 구축 및 수출포장재 지원 등이 함께 병행되면 판로 개척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버섯수출업체 B 관계자는 “단순히 고급매장에서 우리 버섯을 홍보한다고 프리미엄 이미지가 구축되는 게 아니라, R&D 지원을 통해 현지 중·고소득층 취향에 맞는 버섯가공품을 개발해 진출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인삼수출업체 C 관계자는 “이미 중국에서 우리 인삼이 고급품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보다는, 중국산 인

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약리적인 효능 및 안전성을 알리는 학술행사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와 관련 조경규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전문관은 “한정된 예산과 단기사업 특성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보니 품목별로 홍보사업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 신규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R&D를 비롯한 다른 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책과 등 타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포도 품질 기준없어 중국 수출 확대 효과 의문" 우려 목소리

- 우리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이 최종 고시돼 선과장 등록을 마칠 경우 우리 포도의 중국 수출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정부는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국내산 과실이 됐다고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큰 눈치다.
- 우리 포도의 중국 수출 절차 및 현장 분위기, 포도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본다.
- ▲국내산 포도, 중국 수출 절차는=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4월, 검역본부에서 개최한 ‘한·중 식물검역당국간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와 우리 포도의 중국 수출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재배농가 및 선과장 등록, 수출검역, 수출 첫해 중국검역관 현지검역 등이 주요내용.
- 검역본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28일, 올해 생산한 우리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요령’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출단지는 병해충 방제



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집단화돼야 하며, 선과장에는 부패 과실과 병해충 감염 과실 등을 선별할 수 있는 선과시설 및 조명 시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한 내수용과 수출용 포도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수출용 포도의 선과·포장·보관 등의 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자를 한 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생산자 조직이 올해 수확한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역 시장·군수를 경유해 오는 10일까지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농가들의 시·군이 서로 다를 때는 생산자 조직이나 선과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검역본부는 중국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한 재배지에 대해 소속 검역관이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고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 수출재배 단지로 최종 등록해 관리한다.

○ 김영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사무관은 “우리 포도의 중국 수출을 위한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출 시작 전에 중국 검역관이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에 대한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출농가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 검역관의 현지 조사는 오는 9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도수출 현장 분위기는=경기도 화성과 충남 천안, 경북 상주·영천 등 포도 주산지에서는 일단 중국 수출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너무 촉박한 기간.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가 지난달 28일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2주 남짓한 기간에 수출단지 등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쳐야 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봉지 씌우기다. 대미 수출단지의 경우 기존에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지만 거봉·머스켓베일리 에이(MBA)와 같은 품종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은 수출에 참여할 농가 모집에서부터 봉지 씌우기 작업까지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천시 금호농협 산지유통센터의 이상호 과장보는 “판로 등 중국 포도 시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중국 수출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농가들을 모집했다가 문제라도 발생될 경우 자칫 농가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일각에서는 포도 수출단지 난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 포도가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포도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남윤현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 대표는 “수출 포도에 대한 정확한 품질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수출 단지가 늘어날 경우 저 품질 포도가 해외 시장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중국처럼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는 성급한 접근 보다는 수출 단지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신중하게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수출업계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국 포도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시장에서 선호하는 포도 품종의 특성과 소비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선포도 소비 추세를 살펴보면 씨가 없거나 껍질째 먹는 품종을 선호하고 당도가 높은 품종 위주로 소비가 이뤄진다. 반면 국내 주력 수출 품종인 캠벨 엘리 포도는 씨가 많은데다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맛이 강한 품종과 비교하면 다소 신맛까지 느낄 수 있는 품종이다.

- 오성진 엘림무역 대표는 “외국 품종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이 크거나, 씨가 없어 껍질째 먹기 때문에 해외에서 시식행사를 해보면 캠벨도 껍질째 먹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캠벨은 젤리 같은 식감에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만큼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맛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식행사를 가져야 해외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중국관광객이 우리 수출 주력 품종인 캠벨과 거봉 중 어느 것을 좋아하지 평가하고, 동시에 중국 현지 조사도 병행해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김영태 사무관은 “올해는 중국 수출 첫 해라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구이용 흑염소 생산기술 개발

- 자가 배합사료 옥수수 25% 첨가시 생산성·육질 개선 -
-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흑염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이용 흑염소고기 생산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 4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이용 흑염소고기 생산을 위해 비육할 때 생후 5개월에 거세하고 자가 배합사료에 옥수수를 25% 첨가했을 때 생산성·육질 개선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
- 축산연구소는 흑염소고기도 일반 축산물과 같이 소비패턴을 다양화하고 고기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흑염소고기를 구이용으로 이용했을 때 고기가 딱딱해지는 등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이용 흑염소고기 생산을 위한 비육 사양기술 연구'를 2014년부터 추진했다.
- 이 결과 농가 자가 배합사료에 옥수수를 25% 첨가하고 생후 5개월령에 거세 시, 1일 체중증가량 100.2g으로 관행(85.8g)대비 16.8% 증가했으며, 체중 1kg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 요구량도 13.4k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구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함량도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즙과 관련한 보수력(물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도 75.7%로 관행 73.2% 대비 2.5%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 특히 고기 질감과 관련된 전단력(고기를 찢었을 때 질긴 정도)은 3.5kgf로 관행 4.2kgf 대비 16.7%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 축산연구소 김상욱 연구사는 "앞으로도 구이용 흑염소고기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도 추진함과 아울러 흑염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기술 연구를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겠다"며 "흑염소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선진기술과 정보를 축산농가에 제공해 흑염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풀사료 섞어 심으면 한 해 3번 거둘 수 있어요

- 여름 옥수수, 가을 귀리, 봄 IRG 거둬...생산성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풀사료 확보를 위해 여름 사료 작물을 수확한 뒤 이탈리아라이그라스(이하 IRG)와 귀리를 섞어 심는 방법을 권했다.
- 지난해 가을 잦은 비와 올봄 가뭄으로 겨울·여름 사료 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축산 농가의 풀사료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두 작물을 섞어 심으면 가을에 먼저 자란 귀리를 거두고, 다시 자라는 IRG를 봄에 한 번 더 수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풀사료를 마련할 수 있다.
- 5월 초께 옥수수를 심어 8월 중하순에 수확한 뒤, 8월 말 IRG와 귀리를 섞어 심으면(혼파)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귀리와 IRG를, 이듬해 5월 IRG를 수확해 한 해에 3번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귀리를 거두고 나면 심는 시기가 늦어져 IRG 재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옥수수와 여름 파종용 귀리를 심거나, 수수류 재배 후 겨울작물인 IRG나 청보리를 심는 이모작이 이뤄져왔다.

- IRG와 귀리를 섞어 심을 때는, 두 작물 모두 하이스피드(귀리)와 코원어리(IRG)같이 국내에서 개발한 조생종 품종을 선택한다.
- 국산 품종인 하이스피드는 이삭 패는 시기가 스완(외국종)에 비해 5일 정도 빨라 옥수수 수확 직후 8월 중하순에 파종하면 11월 초께 수확이 가능하다.
- IRG는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서는 코원어리 등 추위에 강한 국산 품종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 두 작물을 섞어 심을 때는 IRG를 홀어 뿌린(산파) 후 귀리를 줄뿌림(조파)한다.
- 파종량은 1ha당 IRG 40kg, 귀리 140kg으로 작물이 맞닿아 자라지 않도록 귀리의 줄뿌림(조파) 간격을 30cm 이상 넓혀 준다. 파종 후에는 균일하게 자라도록 땅을 단단히 눌러준다(진압).
- 비료는 IRG와 귀리를 파종할 때와 풀길이가 20cm 내외일 때 1ha당 질소 120kg을 반반씩 나눠 뿌리고, 인산과 칼리는 각각 100kg을 파종할 때 모두 뿌린다. 또, 가을 수확 후 1ha당 질소 40kg, 인산과 칼리를 각각 75kg 주고, 이듬해 봄 질소 100kg, 인산과 칼리를 각각 75kg씩 뿌려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기준 초지사료과장은 "IRG와 귀리의 조생종 종자를 미리 확보해 제때 파종을 마치는 것이 올 가을 사료의 품질과 수량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한우 육질, 초음파로 관리한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한우 육질 초음파 진단 기술

보급을 확대 추진한다.

- 한우 육질 초음파 진단 기술은 사육 중인 한우의 육질을 전용 초음파 기기로 진단해 도축 전에 마블링 상태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이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임금님표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이천 지역에서 초음파 육질 진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 도 농기원은 안성, 평택, 화성, 여주, 양평 등 도내 대표적인 한우 사육 지역을 대상으로 진단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에 안성을 시작으로 초음파 진단 기기와 기술을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도축 전인 22개월령부터 육질을 진단하고 육질 상태에 따라 배합사료(알곡사료)와 조사료(풀사료) 양을 조절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고, 출하 시기도 예측이 가능하다. 초음파 진단은 2~3개월에 한번씩 3회 정도 실시한다. 한우는 통상적으로 30개월 정도에 도축하며, 도축을 한 후에 육질이 판정된다.
- 또한, 번식우의 경우 우수한 암소 선발을 통한 개량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한우 사양(飼養) 관리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번식우 선발에 초음파 진단을 활용하면 기존에 60개월 이상 걸리던 우수한 암소 선발 기간이 20개월로 단축된다.
- 기존에는 암소가 낳은 송아지를 키워서 육질을 판단하면서 우수 번식우를 가려야 해서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육질이 우수한 번식우를 보다 일찍 가려 육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도 농기원 관계자는 “초음파 진단 기술은 장비보다 영상을 해석하

는 인력의 경험과 숙련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습득이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교육으로 한우 농가의 고품질 한우 생산기술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 벼 이삭도열병, 미국선녀벌레 등 주의보 발표!

- 농업기술원, 제2회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 개최 -
- 농작물병해충발생정보 발표, 이삭도열병 포함 4개 병해충 주의보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이 농작물 생육과 과일 성숙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병해충 발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고, 작물별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주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업무 담당 공무원과 도단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벼 이삭 패는 시기를 앞두고 벼 잎도열병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주의해야할 이삭도열병을 비롯하여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그리고 해충인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발생주의보를 발표하고, 이들 병해충에 대한 집중적인 예찰을 통해 적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도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발표한 농작물병해충발생정보가 올 들어 8회째로 벼와 콩, 채소, 과수 등에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병해충에 대한 발생정보를 담고 있으며, 예방과 적기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해충별 자세한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다.

- 주의보가 발표된 벼이삭도열병은 이삭 패는 시기를 전후로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낮으면 이삭 목에 감염이 되는 병으로, 일단 걸리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삭이 2~3개 펴 때,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이나 발생이 우려되는 논은 예방위주로 방제를 해야 한다. 벼 잎집무늬마름병은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 내려 포기 사이 습도가 높을 때 잘 발생하며, 비료기가 많거나 지나치게 가지를 많이 친 논에서 발생한다. 세균성벼알마름병은 8월 중순까지 이삭이 패는 조·중생종 벼에서 고온다습한 날씨 일 때 심하게 발생하며, 벼 알이 홍색의 띠를 두르고 일찍 말라죽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방제요령으로 이삭도열병은 일단 걸리면 치료가 어려워 이삭이 2~3개 펴 때 발생 의심지역에는 예방위주 방제가 필요한 병이다. 잎집무늬마름병과 세균성벼알마름병은 벼 포기 아래쪽까지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적용약제를 이삭도열병과 함께 방제를 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미국선녀벌레는 동부경남 지역의 과수원에서 발견되고 있는 해충으로 인근 산지를 통해 확산되고 있고, 주변 과수원으로 약충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보를 발표하였다. 산림지와 인접한 과수원의 경우 약충과 성충이 관찰되면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방제를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이밖에 이번 병해충발생정보에서 발표한 병해충으로는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고추탄저병과 역병, 고추 담배나방, 총채벌레류, 갈색날개매미충, 배화상병 등에 대해 각각 발생환경과 방제방법을 소개하였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 신청하세요

- 24일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접수 -

- 전라남도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납품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 사업 참여를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신청 자격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친환경 취급자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다.
- 친환경농산물(과채류)은 전남·경북은 각 2개소, 나머지 도는 각 1개소를, 친환경 양곡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생산자단체 선정은 영양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계량평가단의 서류평가(70%)와 현장평가(30%)를 실시해 이뤄진다.
- 선정된 생산자단체는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박정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서울시 학교급식 시장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민에게까지 판로가 확대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전국 최다

- 전국 1호 보성녹차 비롯해 35개 품목 전체의 24% 차지 -
- 전라남도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전남산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호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이 3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 전남산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2002년 전국 1호를 기록한 보성녹차를 비롯해 담양딸기, 고흥마늘, 해남겨울배추, 영암무화과, 진도 울금 등 농산물이 20개로 가장 많다. 또한 돌산갯감치, 진도 홍주 등 가공식품 4개, 고흥한우, 함평한우 등 축산물 3개, 광양고로쇠수액, 구례산수유, 장흥표고버섯 등 임산물 8개 등이다. 이는 전국 등록 품목(148개) 대비 24%를 차지하는 규모다.
- 전라남도는 또 곡성 토란, 신안 무화과에 대해 품목의 우수성,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 타 지역산과 구체적인 차별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가 지리적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등 필요한 등록서류를 갖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임산물은 산림청)에 접수하면 된다.
- 전라남도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품목이 시장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 배타적 사용권 인정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등록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생산·가공·유통·체험·

관광 등이 결합된 지역 농업 특화, 조직화 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은 그 지역 특유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배타적 권리를 선점하고 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리적표시 등록을 확대해 농산물 품질 관리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을 국감 최대화두는 “농업경영비 절감”

- 당정, 농축산경영·농업종합자금 변동금리 1.8%, 고정금리 2.5%로 -
- 농업계 “1%로 내리고 변동금리 오를 경우 대비해 대책 필요” 촉구 -
- 농가경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올해 국정감사 중 농업분야의 최대 화두로 꼽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비 절감대책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뤄야 할 주제로 24개를 선정한 가운데 ‘201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 201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총수입은 3217만 9000원으로 2013년보다 5%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2.7%에 그쳤다. 이유는 농가경영비 때문. 2014년 농업경영비가 21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역대 최고치인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농가경제조사 결



과 농가경제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각종 농자재비, 노무비, 임차료 등과 같은 농가경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이 말한 대책의 핵심도 농업경영비를 줄이자는 것. 신 의원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자재 담합행위를 근절해 농자재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영비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신 의원은 "영농자금의 이자율 인하 등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소득 증대를 강변했던 때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도 "입법조사처가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부여한 것은 농업소득이 미래농업의 중요한 열쇠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올해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직불금 현실화, 농업정책금리 추가인하 등과 같이 현장농민들이 바라는 사안들이 국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기재부 세법개정안...영농상속 공제한도 5억→15억원 확대

-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2018년까지 연장 -

- 축사·부수토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포함 -
- 산림조합도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 영농상속공제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올해 종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또 산림조합도 농협, 수협 등과 함께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회에서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전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농민의 영농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 또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의 재산도 확대된다. 4만㎡이내의 농지, 14만8500㎡이내의 초지, 29만7000㎡이내의 산림지가 기존 감면대상 재산인데, 여기에 '축사 및 부수토지(축사용지)'를 새로 추가된 것이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의 경우 현행 990㎡이내인 감면대상 면적한도가 1650㎡로 확대된다. 감면대상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그 부수토지'로 기존과 같다. 이들 개정안은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 더불어, 올해로 종료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대상은 농어민이 공급하는 석유류,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이다.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된다.

- 임업분야와 관련,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을 추가했다.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3개 기관이었다.
- 이외에도, 기존 읍·면 소재에서 적용되던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그 대상을 읍·면·동 소재로 조정했다. 동의 경우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음식점업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는 1년 늘어난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이에 대해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올해로 종료되는 면세 또는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는 데는 그나마 다행” 이라면서도 “그러나 몇 년간 계속 절끔씩 적용기한을 늘려오고 있는데, 이는 세수가 부족할 때면 언제라도 그 기한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면세유 영구화 등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요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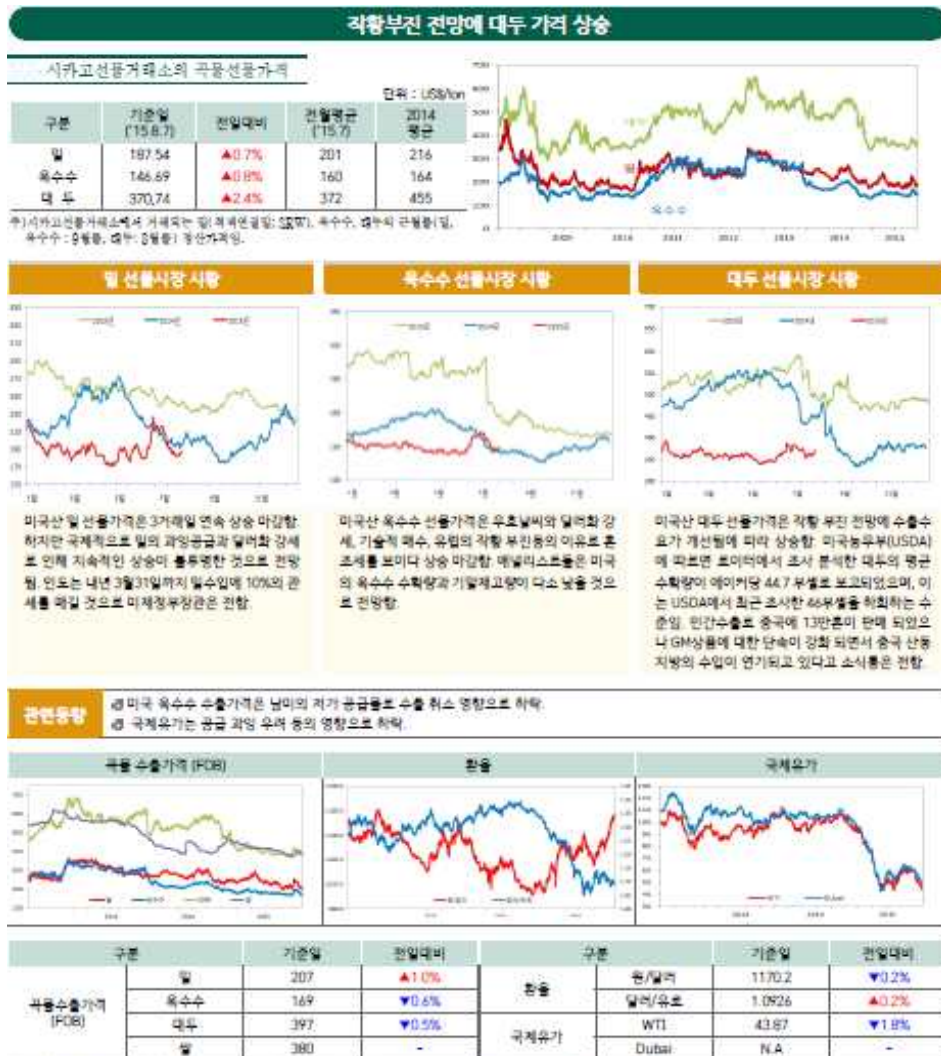
8. 해외 농업정보

◆ 이집트, 8월 이후로 높은 수분함유의 프랑스산 밀에 대한 수용 확대

이집트의 국영 방송국 MENA의 일요일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국영 무역기관 GASC는 8월 이후로 프랑스의 높은 수분함유 밀에 대한 수용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으로서 밀 구매자들은 입찰에서 수분함유율이 13.5%인 프랑스산 밀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지불하면서 수입을 해 오고 있었다. 밀의 높은 수분함유율은 추출되는 밀가루의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GASC의 부위원장 Mamdough Abdel Fattah는 이집트가 수입하는 원산지의 다양성을 위해 이에 대한 패널티 면제의 확대를 고려중이라고 언급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8. 10.(시카고 선물거래소)



주 1) 밀(US GRM Gold), 옥수수(US STC Gulf), 대두(US Gulf), 밀(Thailand 100% Grande B), WTI(9월종),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8.6(수출가격), '15.8.7(환율), '15.8.7(국제유가)이며 작도종목(국제곡물가격, 한국곡물, 한국곡물가격)의 일일최저 및 일일최고 가격 상하미 수 있음.
3) 두바이 유가는 National Day(8.9일) 대체휴일로 상하미치 않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고소득 농업사례

■ 보향다원 최영기 씨 첫 대한민국 6차산업인

- 농식품부, 금녹차 등 혁신적 아이템 산업화제다체험장 운영 등 평가 -
- 전라남도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를 널리 알리기 위해 8월부터 도입한 '이달의 6차산업인(人)'에 최영기 보성 보향다원 대표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이달의 6차산업인(人)'은 시도별 6차산업화지원센터가 해당 지역의 우수 경영체를 매월 1명씩 발굴해 추천하면, 농식품부가 각 시도센터장과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 첫 번째 선정의 영예를 안은 최영기 대표는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녹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차나무에 금콜로이드 용액을 관수, 금미네랄이 함유된 금녹차, 금발효차를 개발했다. 기존 차(茶)와 차별화된 혁신적 아이템을 도입해 산업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기존의 차 생산업체와 달리 생산·가공을 넘어 제다체험장을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채널로 운영해 소비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 보향다원의 차 만들기 체험은 연중 운영하며, 찻잎 따기에서부터 차꽃 따기, 차 만들기, 차 음식 만들기 등과 함께 다도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졌다.
- 방문(체험)객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미국, 프랑스,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관광객이 방문해 한국의 차, 발효문화 홍보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 보향다원은 1938년 증조부 청향농원을 시작으로 현재 최영기 대표의 아들(최준용·31)까지 5대째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보성 보향다원은 2014년 6차 산업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금녹차로 금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전남이 6차산업화를 선도하도록 교육, 자문, 판촉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농식품부는 매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과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라남도는 도내 우수한 6차경영체가 다수 선발되도록 발굴·육성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베트남 여행가이드에서 열대작물 농사꾼으로 변신

- 전남농기원서 교육 이수...마인드·마케팅 기법 전수 -
- 내·외국인 소비자에 여주·오크라 등 열대채소 공급 -
- 지난해 6천611㎡ 여주 밭서 9천200만원 매출 올려 -
- 열대채소로 전남 해남에서 부농을 꿈꾸는 농촌 청년사업가 있어 화제다.
- 주인공은 ‘해남땅 건강人’ 박창민(36)대표다. 박 대표는 베트남에서 여행가이드로 생활하다가 베트남에서 만난 아내와 함께 2012년도 귀농한 새내기 농사꾼이다.
- 귀농 후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던 박 대표는 아내를 위해 열대채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것이 시발점이 되어 열대채소를 창업아이템으로 선택하게 됐다.
- 박 대표는 5일 "한국에 체류하는 150만명이 외국인 중에서 90%

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입됐다"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는 헬프족이 등장하고 힐링푸드와 같은 건강식품을 위해 쉽게 지갑을 여는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볼 때 기존의 농산물에서 찾기 힘든 열대채소만의 약용, 기능성 가치를 적극 활용한다면 틈새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그는 "체류외국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등의 음식점에 납품되고 있는 열대채소를 분석해 본 결과 채소류 전문 도매상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일부 식당은 인접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납품받고 있었지만 동절기에는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덧붙였다.
- 이 때문에 박 대표는 열대작물로 귀농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유통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 그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해남땅’이란 농장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소비자 모두에게 공급이 가능한 여주, 오크라 등 열대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 박 대표는 지난해 6천611㎡(약 2천평) 밭에서 여주를 키워 9천2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 박 대표는 열정만 가지고 열대채소를 재배하기로 결정했지만 기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키우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 수많은 열대채소 가운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채소 10여종류를 선택했지만 각각의 생육 조건이 달라 키우는데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 이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으로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해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했다.
- 박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빨리 판로를 개척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다잡았다.

- 박 대표는 전국 대형시장을 순회하며 여주를 모르는 상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 여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들른 시장마다 배포했다.
- 박 대표의 진정성과 우직함은 전량 판매라는 쾌거를 가져왔다.
- 박 대표는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생여주를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건여주 50g이나 여주즙 3팩을 선물로 제공했으며, 반대로 건여주를 주문한 고객에게는 생여주 2~3개를 요리법 전단지와 함께 제공했다"고 말했다.
- 그는 "택배가 도착할 즈음 직접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말과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 박 대표는 "열대채소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 가공제품을 개발을 구상 중이다"며 "작물 성향에 맞게, 예를 들어 여주를 3~4년 하고 다른 작물을 선택해 키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 박 대표는 귀농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 "여주는 옛날 효능을 모르고 먹던 것이 요즘 들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며 "성공을 해서 귀농을 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 그는 "최근 들어 해남으로 귀농하는 분들이 대폭 늘었던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젊은 혈기로 '맨땅 헤딩'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도 있지만, 원주민들과 오픈마인드를 갖고 젊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모집공고

○ 신청자격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양곡(쌀 또는 잡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등기를 필한 생산자 단체 · 공급에 필요한(작업장, 저온창고)을 보유(임대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양곡(쌀 또는 잡곡)인증」을 받은 생산자 5인 이상 구성 취급자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 공급에 필요한(미곡종합처리시설과 보관 시설)을 보유(임대차 포함)

○ 선정규모

- 친환경농산물 : 전국 11개, 친환경 양곡 : 전국 6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8.12.31.(식재료 공급기간 3년 이하)

○ 신청기간 : '15. 8. 3. ~ 8. 24.(평일 09:00~18:00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 2층 농산급식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평가방법 : 계량평가(서류) 70%, 비계량평가(현장) 30%

◆ '15년 축산분야(양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 기 간 : 8. 5. ~ 8. 21.(2주간)

○ 대 상 : 전업규모(3만두) 이상 양계농가

○ 내 용 : ICT 융복합 시설장비(환경, 사양 등) 및 정보 시스템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융자 50%, 자담 20%

○ 지원기준 : 표준사업비 1억원(3만두 기준) / 상한액 5억원

46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